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낮예배 후에 연말제직회 및 연말공동의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3. 지난 낮예배 시간에 가진 세 분(이현호, 박성근, 박성대 집사)의 안수집사 신임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였기에 우리 하늘문교회 피택 안수집사님이 되었습니다.
4. 이번 주 토요일(12/21) 청소담당은 라오스 목장(오진석 집사)에서, 다음 주일(12/22) 식사담당은 호산나 목장(강숙여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우동정 : 이정한 집사(이데레사 집사)님의 부친이 별세하셔서 장례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내년 1월 첫 주부터 1부예배를 신설합니다. 예배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해 놓은 주일 낮예배·오후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2월 15일	12월 22일	12월 25일	12월 28일
예배기도(오전)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유종열 장로	조정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김경미 권사	이영선 권사	구주성탄절	신경미 권사	
주일식사담당	엘리목장 (신경미 권)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구주성탄절	목장주일	
토요일청소	라오스목장 (12/21)	네팔목장 (12/28)	구주성탄절	남성 2목장 (*20년 1/4)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에 세워질 남·여 목장을 위해서
2. 2020년도에 세워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18번(구주강림) 다같이
*경배찬송	8장(통 9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12장(통 112장) 다같이
대표기도	이현호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마 1:18-25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임마누엘의 하나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묘상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아도나이 찬양팀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122장(통 122장) 다같이
기도	김경미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행 18:1-11 인도자
말씀선포	'만남이 중요합니다' 김묘상 목사
기도	김묘상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다같이
축도	김묘상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30 서신서강해 들어가면서(5) 허영진 목사
빌 3:17-4:1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과녁'(110)

새벽기도회 새벽 5:30 대림절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삶의 여유

산다는 건 힘겹다. 누구나 그렇듯, 삶은 고된 여정이고 수많은 사건들이 한데 어우러져 중압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거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차 있고 사는 때가 허다하다. 어쩌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요원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쌓여만 가는 피로사회 속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다. 지금까지 세상은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져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추겨왔다. 그래서 등 떠밀리듯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고단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힘겨운지도 모른다. 그러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삶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다. 물론 말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여유 없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바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공간이 없고, 이기적 마음이 휘두르는 욕망에 방임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타인을 밀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거듭 반추(反芻)해 본다. 반면 참다운 여유란, 세상은 각박하다는 말 한마디의 체념, 혹은 냉소로 살기보다는 세상은 살맛나는 아름다움이 어디서나 있을 수 있음을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세상이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칭찬의 대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마저 없다면 낭패다.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차이만이 아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벼랑이처럼 여유만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삶은 분명 나쁘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개미처럼 생각 없이 부산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은 후자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흰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그날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기에 반갑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C. S. 루이스의 말이 생각난다. “너 자신을 땅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디는 씨앗으로 생각하라. 정원의 주인이신 이가 정한 때에 꽃 피기를, 드디어는 세상에 나가기를, 드디어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한 씨앗으로 생각하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라. 어느 듯 12월 중순이다. 지금 아득한 한겨울의 중심에서 있다. 차가운 한기를 느끼는 날, 넉넉한 마음으로 차 한 잔 마실 여유를 즐긴다면 어떨까 싶다.

Written by 허영진